

제6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고성군



고성군은 지난 5일 낮 2시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위생처리장 인근 야산에서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산홍과 유실 등 2,650본을 식재했다.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1일 오후 2시 청사 외곽 충혼탑 주변에서 식목행사와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이 청사 입구에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고성경찰서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는 지난 5일 경찰서 정원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목행사를 개최했다. 이용완 경찰서장과 과장들이 묘목을 심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지난 5일 오후 2시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경찰서 청사 및 해양경찰 충혼탑, 함정복지관, 파·출장소 등지에서 봄맞이 환경정리 및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탄력

송훈석 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 해결 ... 강원도·농림식품부와 협의 마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0-30 일원에 남북 교류의 배후지 개발로 주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행정절차상 애로사항이 해결



돼 조만간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최근 고성군과 현내면 주민들이 건의해 온 '명파리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의 걸림돌이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과 관련, 강원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2008년 4월

부터 금년 5월까지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0-30 번지 외 70 필지에 숙박시설(펜션), 전통먹거리촌을 비롯해 역원마을, 국토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6월 이후 주민설명회와

보고회를 3회 개최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군작전성검토 협의 등을 마치고, 군 관리계획 변경 신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송훈석 의원의 노력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향후 강원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절차 등 빠르게 사업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2종지구단위 계획(관광형) 구역에 편입되는 부지는 총 119,313㎡이며, 이 중 농지는 54.7%인 65,302㎡(답 44,764 전 19,587 기타 951), 비농지는 45.3%인 54,011㎡다. 최광호 기자

급 구

주방아주머니 · 써빙(여)

주방아주머니(타임제 근무, 3명)

- 오전 6시~오후 2시
- 오전 8시~오후 4시
- 오후 3시~오후 10시

써빙(1명)

□오전 9시30분~오후 9시30분

● 이력서 제출 ● 급여 상담 후 결정

이모순두부

속초시 노학동 ☎011-9791-5500

고성군보건소 보건시책 종합평가 1위

질병관리·영유아 건강검진 시책사업 분야

고성군보건소가 2010년도 시·군 보건시책 추진실태 종합평가에서 질병관리분야와 영유아 건강검진 시책사업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고성군보건소는 지난해 1천 382만 4천원을 투입해 5만 1천 222명에게 고혈압·당뇨·고지혈증질환자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했다.

또 333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홍보, 250명에 대한 동맥경화검진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이뤄졌다.

이밖에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32회, 도자기공예 프로그램 22회, 장애인 나들이행사 2회, 아동청소년·군장병·지역주민 등 2,259명에 대한 중독 및 자살예방사업, 치매환자관리 1,472명, 원격치매클리닉운영 26회 등의

실적을 거뒀다.

고성군보건소는 이와함께 건강증진분야인 영유아 건강검진 시책사업에서도 업무추진 적시성과

관련 업무에 대한 숙지·이해도 등의 측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1위를 차지했다.

박승근 기자

비산먼지 발생 102개 사업장 점검

고성군은 지난달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7주간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10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방진망 또는 방진벽의 설치여부, 임의철거 및 훼손방치 여부, 세륜시설의 미설치 및 고장 방치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이행 및 적재높이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군은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사업장,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 및 주거 인접지역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